

엔데믹 후 첫 어린이날... 보육시설 어린이도 설렌다

광주·전남 32곳, 4년만에 후원자와 만남 갖고 외부 활동 1박2일 캠프·후원자 매칭 1대1 데이트·체육대회 참가 등

광주·전남지역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이 엔데믹 이후 첫 어린이날을 앞두고 떠돌았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년간 대면행사가 사라지면서 어린이들은 보육시설 내부에서만 지냈지만, 올해는 보육시설에서 각종 대면·야외 행사를 마련하면서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32곳(광주 10곳 371명·전남 22곳 1452명)의 아동양육 시설이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육시설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외박이 전면 금지되던데다, 후원자와 봉사단 방문까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다채로운 야외 프로그램으로 외로움

을 타는 어린이들을 달래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어린이날'과 '생일'인데, 그동안 시설 안에서만 있어 너무 속상했다"는 게 행사를 계획한 양육시설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나주에 있는 금성원은 지난 3년간 외부활동 불가로 어린이날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비대면(ZOOM)으로 독서 및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외에서 조차 반별로 돌아가며 체육활동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드론 날리기, 호수공원과 키즈카페 등을 방문해 본격적인 야외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주 백민원 역시 올해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해 학교 마당극 체험, 나주 로컬푸드 딸기체험, 나주 청소년수련원 주최 어린이행사 참여 등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야외가 봄베 제대로 즐기지 못할 우려에 미리 야외 활동을 마친 곳도 있었다. 광양 영웅 아동양육시설은 어린이날에 앞서 지난달 광주패밀리랜드에 다녀왔다.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1년 중 가장 의미있는 하루라는 점에서 부모와의 만남도 마련한다.

광주시 남구에 있는 노들담 형제의집은 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날 주간을 갖고 '아이좋아 아이좋은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날에는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이튿날에는 영화상영과 그림 그리기 대회, 7일에는 영화관 외출에 나선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이 기간 활동을 담은 사진에 상품을 걸고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동구의 무등육아원은 5일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화순 백아산노치생태마을로 캠프를 떠난다. 무등육아원 관계자는 비가 예보돼 있지만 바깥 나들이

를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이라고 귀뻐했다.

외부인 출입 금지에 따라 아이들과 만남을 갖지 못했던 후원자들과의 대면 행사도 열린다.

미취학 아동부터 미성년자 이전의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 일백원은 아이들과 후원자를 1대1 매칭해 외부 데이트를 진행한다. 후원자들은 인형, 포켓몬카드, 문화상품권 등 각자 아이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남구 신애원은 원내 교회 집사, 아이들 멘토들이 행사에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5일 어린이날에는 체육대회와 기념식을 진행하고 교회에서는 달란트 잔치도 연다.

이웃, 기관들의 마음이 더해지는 행사도 있다. 보호아동 43명이 함께하고 있는 순천의 SOS어린이마을은 4일 영화관람을 시작으로 5일에는 체육대회를 연다. 어린이날에는 동네 식당 사장님의 초대로 삼겹살 외식도 예정돼 있다. 코로나 시기에는 솜사탕 만들기, 뽑기 등 실내 위주의 활동만 해

왔지만 올해는 광주 패밀리랜드와 더불어 학부모 초청 프로그램까지 진행한다.

44명의 원생으로 이뤄진 여수 삼해원도 자원봉사 단체 '52패밀리'의 협조로 고기파티, 솜사탕 만들기, 뽑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른 기관·시설과 협조해 대규모로 행사를 펼치기도 한다. 화순 자애원은 매년 아이들과 곡성 자전거마을, 광주패밀리랜드 등을 방문했으나 올해는 본격 엔데믹을 맞이해 타 복지시설과 전남 아동기관과 협조해 전남꿈나루체육대회(연합체육대회)에 참가한다.

김미자 목포아동원 원장은 "코로나 시기 어린이들이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문화활동도 못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규제가 풀린만큼 운동회 외에도 자체 체험학습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계획이다"며 "외부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담양대나무축제 오세요 관광객들이 3일 '2023 담양대나무축제' 현장을 담양군 관방제림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만에 개최한 이번 축제는 오는 7일까지 추성경기장과 관방제림 일대에서 열린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전남 어린이 교통사고 '5월 최다'

매년 100여 건...하교시간대 빈번

'가정의 달' 5월에 광주·전남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광주·전남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광주에서는 4582건, 전남에서는 5755건 등 총 1만 33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하고 1만 327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3월 796건, 4월 904건, 5월 1097건 등으로 개화철인 3

월부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5월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는 6월 978건, 7월 900건, 8월 989건 등으로 줄어 들었다.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인 오후 4~6시에 발생한 사고가 2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2~4시가 1831건, 오후 6~8시가 17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하교시간대 저학년의 보행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어른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학원가, 아파트 단지과 같이 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에서 안전준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도, 행락철 식품안전관리 강화

관광지 식품접객업소 8곳 적발

전남도가 봄 행락철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제전 등 대형 행사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 주변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8곳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시·군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기업형 대규모 사업장 위주도 전문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업체를 특정해 점검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선회 등 일식류, 탕반류, 한식류 등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가스 등 시설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미신고 업소에 대해 영업자를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무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제전 등 대형 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는 전라남도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는 해"라며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각지서 '우리동네 오월학교' 운영

5·18기념재단 10월까지

5·18기념재단이 오는 10월까지 전국 교육단체 및 동네책방과 협업해 '우리동네 오월학교'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동네 오월학교는 각종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5·18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지난 3월 전국 교육단체 및 동네책방을 대상으로 지역·단체별 특성에 맞는 오월학교 프로그램을 공모해 11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오는 14일 동네책방 '예지책방'은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댄스컬' 공연을 개최한다.

동네책방 '러브앤프리'는 20일 전국 동네책방 운영자들을 모아 5·18강의 및 도서전을 진행하며, 교육단체 '문화행동 삼'은 5월 내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18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순천시 '골목책방 서성이다'는 순천정원박람회 관광객과 연계해 5·18 전시 및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교사들과 연계해 전남 동부권 학교에서 5·18교육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에 있는 (사) '꿈틀리'는 청소년 5·18워크숍 및 오월길 답사 프로그램을, '노원인권공간 자람'은 5·18강의 및 인권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대구 '동네책방협동조합 책방아이'는 5·18어린이 퀴즈대회, 평화캠페인, 사진전 및 인권강좌 등을 개최하며 부산 '인디고 서원'은 재단과 함께 개발한 민주주의 워크북을 이용해 연수사업을 시행한다. '강원교육연구소'와 충북 '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도 5·18독서동아리 및 현장답사, 5·18 '보이는 라디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단은 또 전국 동네책방 및 공공도서관 57곳과 '오월서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시민들에게 5·18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